

고양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
동네의원과 민관의료협업

치매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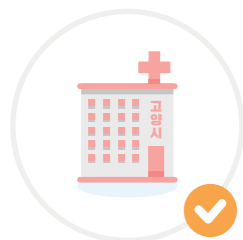


7월부터 고양시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이에 따라 치매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

글 신은숙 사진 일산서구보건소

치매선별검사비 지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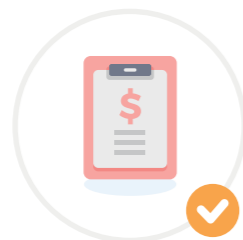
Step 1



**주소지,
연령 확인
(협약 동네의원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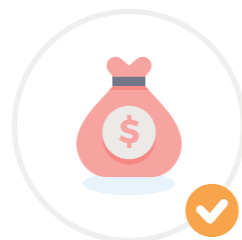
- **지원대상**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(50. 1. 10이전 출생) 어르신으로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분
- **검진기관** 고양시 관내 120개 동네의원
※ 협약 동네의원은 치매안심센터 및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(치매조기검진비 검색)에서 확인

Step 2



**치매조기검진
실시 후
검진비 청구**

Step 3



**치매안심센터 등록 후
치매통합서비스 제공,
검진비 지급**

• **시행시기** 2019. 7. 1 ~ 연중

치매로 의심·진단된 어르신은 고양시 치매안심센터와
연계해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

고양시의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. 이에 고양시는 대형 병원이 아닌 고양시 3개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120개 동네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새로운 유형의 민관의료협업을 선보였다.

이제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동네의원에서도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. 이번 협업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기진단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증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일까요?



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받는 정신적 물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관리 등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.

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작업치료사 등이 상주한다. 또한 치매 예방 목적으로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치매선별검사,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치매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위한 단기쉼터, 가족카페 등을 운영해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헤아림 교육과 자조모임,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의 인지 상태 향상으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등 정서를 돌본다. 특히 환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친화적인 공감대를 키워가고 있다. 🏡



1 쉼터졸업식
2 인지강화교실

Tip

고양시 치매안심센터



- ① **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**
📍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73 2층
☎ 문의 031-8075-4042
- ② **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**
📍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1층
☎ 문의 031-8075-4850
- ③ **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**
📍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88 3, 4층
☎ 문의 031-8075-4192